태국 경제관련 현지 언론동향

2021.6.14.(월) 주태국대사관

□ 5천억 바트 추가 차입안, 하원 통과 (6.11, Bangkok Post)

o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5천억 바트(약 161.3억 달러)의 추가 차입안이 양일간(6.9~10)의 하원 심의를 통해 표결을 통과함.

- 이는 작년도 1조 바트 차입에 이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두 번째 차입이며 이 중 3천억 바트(약 96.8억 달러)는 코로나19 타격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및 경기부양, 300억 바트(약 9.7억 달러)는 백신, 의료장비 등 구매, 나머지 1,700억 바트(약 54.8억 달러)는 경제사회재건에 집행될 계획임.
- 아콤 재무부 장관은 동 차입이 '22년 회계연도 말(9.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공공부채 규모가 GDP대비 60% 이내를 유지하도록 정부 재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함.
- 쁘라윳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코로나19 종식시기를 알 수 없는 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추가 차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고 야당은 정부 예산집행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함.

□ 노동부•산업부, 근로자 백신접종에 총력 (6.12, Bangkok Post)

o 코로나19 백신공급 부족으로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어 전염 확산시 산업계 전반이 위태로워 질 수 있는바, 노동부와 산업부는 근로자들의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임.

- 노동부는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6월 중 방콕내 근로자 246만 명에 대해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에는 고위험 지역 11개 주 227만 명, 8월에는 148만 명에 대한 접종 계획을 밝힘.
- 산업부는 산업단지공사(IEAT) 및 산업작업국내 입주 제조기업의 근로자 330만 명의 백신접종을 위한 장소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 IEAT는 7월부터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공장 근로자 67만 명의 백신접종이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고 태국산업연맹(FTI)은 7월 말 회원사 근로자 30만 명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함.

□ 베트남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강화로 泰 자동차 수출 차질 빚나 (6.14, Bangkok Post)

o 베트남 정부가 '22.1월부터 국내 생산 및 수입 자동차에 대해 유로5(Euro5) 배출가스기준을 적용할 예정인 바, 태국 자동차 업계는 향후 태국 자동차의 對 베트남 수출에 미칠 타격을 우려함.

- 수라퐁 태국산업연맹(FTI) 자동차부문 부회장은 베트남의 동 기준 강화로 인한 태국 자동차 수출 타격이 우려되나 현재로서는 피해규모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밝힘. 다만, 여러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유로5 기준을 도입한다고 함.
- 피씻 태국 자동차 연구원(TAI)은 태국 자동차의 베트남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태국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양국 정부가 해결책 도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그러면서 태국 자동차 제조기업 중 일부는 이미 유로6 기준의 차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힘.

※ 작년도 태국 국가환경위원회는 '24.1.1일부터 유로5 배출가스기준 도입계획을 발표

뉴스 보도 출처: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130291/emergency-covid-loan-approved-by-big-margin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131135/ministries-race-to-vaccinate-factories-amid-shortage
- https://www.bangkokpost.com/business/2131867/cars-face-barriers-in-vietnam